카타르 도하 입성 손흥민

“특별한 월드컵 만들고파”

토트넘 구단 제작 검은색 마스크 쓰고 팀 훈련 소화

토트넘 구단에서 제작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훈련에 임하고 있는 손흥민.

안와 골절상 수술을 받고 2022 카타르월드컵이 열리는 ‘약속의 땅’ 도하에 입성한 한국 축구대표팀 에이스 손흥민(30·토트넘)이 마스크 투혼을 불사하며 출전 의지를 내비쳤다.

손흥민은 16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열린 한국 축구대표팀 공식 훈련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카타르에 오기 전부터 구단에서 따로 훈련을 진행하고 볼을 계속 찼다. 오늘 훈련도 구단에서 할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다. 구단과 대표팀이 소통을 해왔고, 오늘도 크게 다를 것 없이 훈련을 잘 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즌을 계속 치러왔고 부상 전까지 빠짐없이 뛰어왔다. 훈련을 쉰 게 열흘 정도밖에 안 된다. 재충전할 시간이었다. 수술이란 게 몸을 망치는 일인데, 다행히 잘 됐다. 지금은 수술 후 회복하는 단계지만 몸 상태는 크게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 결전지인 도하에 입성한 손흥민은 입국한 지 10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전 9시45분경 팀과 함께 훈련장에 나타났다.

손흥민은 붉은색 홈 유니폼을 입고 단체 사진 촬영을 한 뒤 훈련 전 준비해 온 마스크를 꺼내 착용했다.

팀과 함께 20여 분 몸을 푼 손흥민은 황희찬(울버햄튼), 김진수(전북)와 따로 회복에 집중했다.

손흥민의 마스크는 소속팀인 토트넘 홋스퍼 구단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은색으로 얼굴의 윗부분 반 정도를 가려 ‘쾌걸 조로’를 연상케 한다. 또 측면에는 그의 등번호 7번이 흰색으로 새겨졌다.

손흥민은 “생각보다 편안해서 나쁘지 않았다. 영국에선 날씨가 좋아서 편했지만, 이곳은 덥다 보니 땀을 흘려서 계속 마스크를 만지게 됐다. 또 얼굴 형태가 부기가 빠지면서 달라져 맞추다 보니 만지게 된다. 그래도 생각보다 편해서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카본으로 만들어 가볍다. 단단하고 어느 정도 충격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졌다. 생각보다 가벼워서 놀랐다. 충분히 여유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사상 두번째 원정 16강 도전… 단체사진 촬영하는 한국축구대표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과 선수들이 16일(현지시간) 오전 카타르 도하 알 에글라 트레이닝센터에서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축구대표팀은 사상 두번째 원정 16강에 도전한다.

손 씻기 · 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하세요.

장수 유소년 축구팀, 전국대회 우승

장수가야FC, 울진 금강송배 전국클럽 2차 대회 출전… 정읍대회 이어 두번째

사)건강장수 공공스포츠클럽(회장 서병선)은 유소년 축구팀인 장수가야FC가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린 ‘2022년 울진 금강송배 전국유소년클럽 축구대회’ 2차 대회에 출전해 U-13부에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울진군이 후원하고 한국유소년축구클럽연맹이 주최, 울진군축구협회와 한국유소년축구클럽연맹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100개 팀(1차 36개 팀, 2차 64개 팀) 1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학년별로 6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6인 및 8인 경기로 진행됐다.

2차대회 U-13부에 출전한 장수가야FC는 조별 예선을 풀 리그로 치른 뒤 순위에 맞춰 토너먼트를 거쳐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사)건강장수공공스포츠클럽 유소년 축구팀 장수가야FC는 2021년 정읍대회에 이어 두 번째 우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최우수 지도자상에 이용휘 감독, 최우수 선수상에 서문진우 선수, 최우수 GK상에 장원석 선수가 입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서병선 회장은 “제2의 손흥민을 꿈꾸는 어린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훈련으로 쌓은 실력을 마음껏 펼침으로써 축구에 대한 안목을 넓혀 한국 축구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낭만가득! 태권도원’ 17~19 · 25~26일 운영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 이하 재단)은 가족과 함께 태권도원을 즐길 수 있는 체험 및 공연 이벤트로 17일~19일까지, 25일과 26일 오후 1시(토요일은 2시)부터 태권도원 도약센터 일대에서 ‘낭만가득! 태권도원’(이하 이벤트)을 운영한다.

늦가을에 열리는 이번 이벤트는 태권도 관련 문제에 도전하는 ‘OX 퀴즈 재미있는 미션을 수행하는 도전! 기네스 왕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림보왕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펠러 비즈 공예, 슈링클스 및 보석십자수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마술, 버블쇼 등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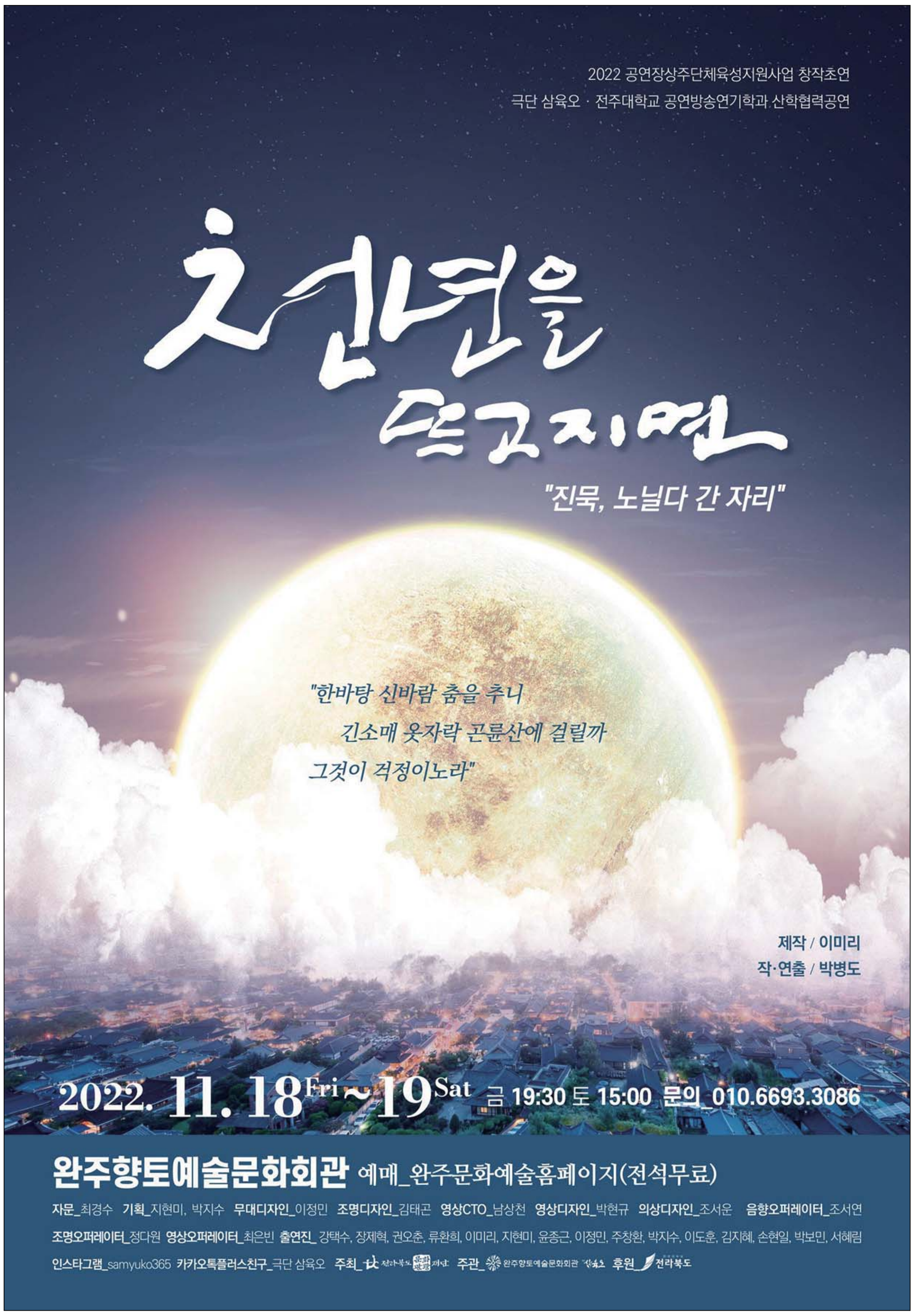
특히, 주간 이벤트에 이어 7시부터는 국악, 탭댄스, 버스킹 등의 공연이 도약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태권도원 이용 고객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태권도원은 이미 최고의 여행지로서 올 가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라며“처음 방문도 즐거운 태권도원! 다시 와도 새롭고 행복한 태권도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낭만가득 태권도원’ 이벤트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가족 식사권, 카페·베이커리 이용권, 편의점·마트 이용권 등의 푸짐한 경품도 증정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청소년스포츠안전캠프 성료

전북도체육회가 추진한 청소년스포츠안전캠프가 학생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 마무리됐다.

16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스포츠안전캠프를 남원 지리산유스캠프에서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했다.

올바른 스포츠 활동 교육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 된 이번 캠프는 스포츠안전재단이 주최하고 도 체육회가 주관했으며 도내 초·중학생 120여명이 참여했다. /김경수 기자